

中 저가 공세에 美 25% 관세폭탄... 철강업계, 대책마련 고심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예고
韓 철강, 미국에 연간 260만t 수출
업계, 구체적 행정명령 발표에 촉각
현대제철, 美에 제철소 건설 검토
정부 “세부내용 파악 중” 긴급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철강 업계와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저가 공세,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 폭탄’까지 떨어지면 업계는 3중고에 빠져 수익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을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고로에서 출선하고 있는 모습.

세를 반도체·의약품과 함께 묶어 수개월 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한국 철강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철강 시장은 연간 1억톤에 달하며 자체 생산량은 8000만톤이다. 수입량은 2000만 톤 이상으로 한국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0만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

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현재 철강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명령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지 생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나오지만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강판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제철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 의사 결정이 나오면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개발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 기조를 이어간다. 포스코그룹도 이달 초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현지 진출에 대해 “투자비가 많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다양한 옵션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보는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행정 명령을 기다리며 각사별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철강 업체로 일부 물량이 들어가지지만 미국 철강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근 기자 ysw@metroseoul.co.kr

엔화 연일 강세... 100엔=1000원 돌아오나

트럼프, 관세전쟁 다음타깃 'EU' 주목
日 은행, 올해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당분간 엔화 가치 상승세 지속될 듯

엔화가 연일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우려에 달러와 유로 가치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엔화 선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올해 기준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오면서 엔화 가치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27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956.2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가치 상승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을 관세전쟁의 다음 목표로 지목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선호를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유예됐지만,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는 지난 4일 시행됐다. 중국도 10일부터 미국 물품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7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10~11일부터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를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유럽 연합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는) 매우 간단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상호관세는 10~11일 발표 뒤)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지만 세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것

이며, 이는 다른 나라를 포함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유럽 연합을 지목하면서 유로 가치는 하락세다. 지난 7일 기준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당 0.968유로로, 트럼프 당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 당시 0.919 유로와 비교해 5.33%가량 상승(유로 가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61엔에서 151.44엔으로 소폭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올해 들어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에서도 엔화는 G10(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엔화가 관세전쟁의 여파를 비껴간 것은 일본이 트럼프 리스크가 비교적 덜한 국가라는 분석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5년간 대(對)미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종전 8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승진 기자 asjl231@

서울시민, 우울감·스트레스 ↑ 흡연율·음주율 동시에 늘었다

2023 서울 지역사회 건강통계

지난 2년간 서울시민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모두 증가하며 정신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흡연율과 음주율도 동시에 늘면서 건강 개선 여지도 줄었다.

10일 시가 최근 발간한 ‘2023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내 1만3008가구, 2만29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만3008가구, 2만2928명 조사
서대문·노원·강남·송파·종로 주민들 스트레스 인지율 높아
흡연율 16.6%로 1.3%p 늘었고
월간 음주율 55.3%→56.3%로

3%에서 2023년 8.4%로 1.1%포인트 늘었다. 노원·송파·광진·서대문·도봉구는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고, 동대문·영등포·양천·은평·금천구는 적었다. 동 기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우울증 선별 도구(PHQ-9)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우울 증상 유병률’은 4.1%에서 4.4%로 0.3%포인트 증가했다. 노원·성북·도봉·서대문·중랑구는 우울 증상 유병률이 높았고, 양천·금천·동대문·은평·중구는 그 반대였다.

흡연율이 늘고 폭음을 하는 등 건강 행태도 악화됐다. 서울시민의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궤련)은 2022년 15.3%에서 2023년 16.6%로 1.3%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흡연율’은 전체 응답자 중 평생 권련을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담배를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강서·관악·강북·중랑구는 현재 흡연율이 높은 편에 속했고, 서초·종로·강남·성동·송파구는 낮았다.

음주 행태 역시 나빠졌다.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의 경우 2022년 55.3%에서 2023년 56.3%로 1%포인트 상승했다. 월간 음주율이 높은 자치구는 서대문·송파·종로·동작·영등포구였다. 강동·관악·금천·도봉·성동구는 그 반대였다.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 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여자는 5잔(혹은 맥주 3캔) 넘게 음주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도 2022년 29.6%에서 2023년 31%로 1.4%포인트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

“원유 가격 경쟁력 갖추면 자연스럽게 도입”

>> 1면 ‘美, 캐나다산 원유...’서 계속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는 비교적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를 적극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사실상 미국이 독점해온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나다산 원유 수입 비중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산 원유 가격 자체

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더라도 물류비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러나 업계는 캐나다 서부에서 태평양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 국면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가 필요한데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유업계에서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캐나다산 원유 도입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고려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원유 도입 결정은 개별 기업이 경제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캐나다산 원유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eon@